

사회적 칼빈주의와 한국교회의 사회적 공공성

김동춘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I. 들어 가면서

II. 사회적 공공성에서 퇴각당하는 칼빈주의?

III. 어떤 칼빈주의가 문제인가?: 한국개신교의 ‘정경적 칼빈주의’ (Canonical Calvinism)

IV. 칼빈주의가 사회적 공공성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

1. 사회속의 공적 신학으로서 칼빈주의
2. 칼빈주의의 타당성 구조의 문제

V. 왜 한국 칼빈주의는 사회적 공공성에 실패했는가?

1. 정통성, 절대성, 무오성으로 전제된 배타적 특권신학으로서 칼빈주의
2. 세계형성적 공공신학이 아닌 교리 변증적 칼빈주의: 정통실천(orthopraxis)없는 정통교설(orthodoxy)
3. 사회변혁적 예언자적 신학이 아닌 교회 수호적이며, 기득권 옹호적 국가 신학으로서 칼빈주의
4. 사사화된 신학(privatized theology)이 되어버린 칼빈주의

VI. 사회적 칼빈주의란 무엇인가

1. 사회적 칼빈주의에 대한 기초적인 착상
2. 사회적 칼빈주의를 위한 핵심적인 구상
3. 사회적 칼빈주의를 위한 신학적 모색의 사례들

VII. 나가면서

• ABSTRACT •

Social Calvinism and social Publicity of Korea Church

Kim, Dong Chun

This paper examines critically the theological character of Calvinism which is influential in Korean conservative Protestant theology as it concentrates on the publicity of Calvinism, and suggests an alternative theological aspect, called as social Calvinism. Although Calvinism was not only a legacy of the 'world-formative Christianity,' but also the product of the transformative Christianity that contributes to social progress, the development of politics, and economy in all sphere of life, Calvinism has been understood as an apologetic tool based on the five fundamental points such as total depravity, unconditional election, limited redemption, irresistible grace, perseverance of saints in Korean Church. Therefore, in order to fulfill Korea church its public responsibility in society, this research paper delves into the heritage of cultural transformation of neo-Calvinism in the Netherlands Kuyperian tradition and the perspective of liberation theology that have been found in the Reformed Church and theology of South Africa, that is, newly rediscovered in today's church and social situation, and social Calvinism sought.

Key words: social calvinism, world-formative christianity, kuyperian tradition
neo-calvinism, publicity of church

I. 들어 가면서

한국 개신교 지형에서 광범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칼빈주의는 사회적 공공성의 관점에서 평가할 때, 그 타당성과 설득력을 상실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칼빈주의란 소위 정통주의, 보수주의, 근본주의, 청교도신학, 개혁주의라는 우산아래 포진된 신학을 말한다.¹⁾ 그런데 이러한 형태의 칼빈주의는 많은 경우 일부 특정 교리를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교리체계와 폐쇄적인 신학적 사고와 세계관으로 인해, 우리 사회의 공론장과 공적 영역에서 기독교의 진리됨을 설득력있게 드러내주면서 타당한 확신으로서 기독교 신앙의 면모를 구현하고 있는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

II. 사회적 공공성에서 퇴각당하는 칼빈주의?

최근 들어 칼빈주의 교회와 목회자, 그리고 교계 그룹이 전방위적인 도덕적 퇴락으로 인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고, 그들의 배타적 사고와 병리적 행태들로 인해 우리 사회의 공공의 영역에서 설득력있는 공감과 타당성을 획득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사회의 공론장과 미디어 매체에서 지탄의 대상으로 빈번하게 노출되고 있는 목회자와 교회가 대부분 보수 칼빈주의 신학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그 원인에

1) 한국개신교의 칼빈주의는 관점과 강조점에 따라 '교리 변증적 칼빈주의', '문화변혁적 칼빈주의', '에큐메니칼 칼빈주의'로 분류할 수 있다. 이 글에서 비판적으로 다루고 있는 칼빈주의는 주로 '교리 변증적 칼빈주의'를 가리키며, 구체적으로는 정통파 개혁주의와 청교도신학을 특징으로 하면서 근본주의와 보수주의 성향의 칼빈주의를 말한다. 우리는 여기서 모든 칼빈주의 교회와 신학이 사회적 공공성에 역행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오히려 칼빈주의자들 가운데 사회적 책임과 사회봉사와 정치적 참여에 적극적이며, 그것이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는 칼빈주의 사회운동이 존재한다는 점을 언급해야 할 것이다.

대한 냉철한 관찰이 필요하다. 이들 가운데는 교회 재정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거나, 무분별하게 교회세습을 시도하면서, 공교회를 사적 소유물 처럼 임의적으로 운영하고 처분하면서, 교회 사유화의 행태를 보여주고 있으며, 윤리적으로는 건덕스럽지 못한 성적 스캔들에 노출되기도 하고, 사회적 이슈와 재난앞에서 우리 사회의 평균가치에 부합한 상식적인 사고와 전혀 동떨어진 발언과 행태를 남발하는 등, 사회속의 공공의 삶과 공공의 영역에서 매우 심각한 파행적인 모습을 노출하고 있는 기독교 집단이 주로 칼빈주의 신학을 배경으로 하는 목회자들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 청의보다 성화를 강조하는 칼빈주의 교리로 훈련받은 목사들이 그렇게도 거룩한 삶과 경건함과 동떨어진 세속주의에 물든 퇴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칼빈주의 정신과 가치가 묻어 나와야 할 장로교 목사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고,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목사의 사유화된 주권 확장에 급급하면서, 가장 인본주의 방식의 목회를 추구하며, 저급한 인격파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도덕적 신뢰도는 저 밑바닥 수준을 면치 못하는가?

그 대답을 우리는 보수신학 성향의 정통 칼빈주의 그룹의 왜곡되고 편협한 신앙구조와 신앙사고, 그리고 그들안에 내재된 기괴한 신학적 논리구조에 있다고 판단한다.²⁾ 다시 말해 한국교회에서 명시적으로 칼빈주의를 표방하는 신학집단과 교계그룹의 사회 병리적이며, 사회적 공공성에 배치되는 모든 현상들은 칼빈주의의 교리와 신학체계를 편협하고 왜곡된

2) 칼빈주의 그룹의 탈윤리적 현상에 대한 답변으로, ① 칼빈주의 무용론: 칼빈주의는 그 자체안에 사회윤리와 사회적 공공성을 담보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폐기되어야 한다는 입장. ② 칼빈주의 만능론: 칼빈주의는 모든 사회적 답변을 줄 수 있는 사상체계라는 절대 확신을 갖고 있는 입장이다. ③ 칼빈주의 재구성론: 본 논문의 관점은 칼빈주의 신학과 사상에서 사회 공공적 유산과 신학적 원리를 재발굴하여 재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식으로 투영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칼빈주의에 뿌리를 둔 교회와 신학이 빈번하게 사회의 공론장에서 보편성과 타당성 구조를 벗어나 상당 부분 이해 불가한 정도로 일탈적인 행태를 보여주는 원인과 배경을, 즉 칼빈주의의 사회적 공공성 결핍의 근원적 원인을 신학적 요인에서 찾아야 한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본 논문은 한국 칼빈주의의 사회적 공공성의 실패에 대한 신학적 분석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다. 특히 칼빈주의를 신학적 기반으로 하는 한국장로교회가 그들이 표방했던 신학적 강조점이 왜 사회 공공적 차원에서 구현되지 않았는가를 질문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신학적 칼빈주의와 윤리적 칼빈주의는 왜 통합되지 않고 분리되어 있으며, 고백적 칼빈주의와 실천적 칼빈주의, 그리고 칼빈주의의 교리와 사회적 에토스는 결합할 수 없는가를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러한 신학적 대안으로서 ‘사회적 칼빈주의’(Social Calvinism)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III. 어떤 칼빈주의가 문제인가?: 한국개신교의 ‘정경적 칼빈주의’(Canonical Calvinism)³⁾

먼저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본 논문에서 비판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칼빈주의에 대한 유형론적 분류가 필요할 것이다. 한국개신교에서 전개된 칼빈주의 유형을 세분한다면, ① 교리 변증적 칼빈주의, ② 문화변혁적 칼빈주의, ③ 에큐메니칼 칼빈주의로 분류할 수 있다.⁴⁾ 그러나

3) 필자는 한국에서 ‘개혁주의’, ‘칼빈주의’, ‘칭교도신학’은 확실히 ‘정통적’이며, 어떤 교리적 오류가 없으며, 다른 신학과 상대화되거나 비교불가의 신학이며, 그 자체로서 완전성과 최종성과 무오성을 지닌 신학체계처럼 이해되어 있다는 점에서 거의 ‘정경적 신학’으로 규정되어 왔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김동춘, “한국개혁신학의 패러다임”, 『국제신학』 제12권(2010), 35-42.

한국에서 칼빈주의란 거의 대부분 교리 변증적 칼빈주의의 동의어로 이해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 에큐메니칼 칼빈주의는 칼빈주의의 본령(本領)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고 있고, 문화변혁적 칼빈주의는 교리적 칼빈주의와 정치관, 세계관, 문화관에서 많은 상이점이 있을 뿐 아니라, 상당한 교리상의 불일치⁴⁾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교리 변증적 칼빈주의가 이해하는 칼빈주의는 기본적으로 정통주의 개혁파 노선을 말하며, 성경관에 있어서 축자영감설적 성경 무오설을 믿으며, 신앙 배경은 주로 장로교회적이면서,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를 주된 고백서로 채택하면서, 동시에 청교도주의를 계승하되, 율법주의적 엄격주의 경향이 있으며, 신학적 기준점은 칼빈에 두지만, 바르트에 대해서는 신학적 한계를 설정하고, 교회일치운동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반에큐메니칼적이다. 그들이 이해한 칼빈주의는 자유주의 신학과 강렬한 투쟁의 대책점에서 있는 신학으로, 자유주의 신학으로부터 정통신학을 수호하는 기능을

-
- 4) 조지 마스던은 미국내 개혁주의를 ‘교리주의자’, ‘문화주의자’, ‘경건주의자’로 분류한다. G. Marsden, "Introduction: Reformed and American", in D. F. Wells(ed.), *Reformed Theology in America*, (Grand Rapids: Baker Books, 1997), 3.
- 5) 예전대 교리주의적 칼빈주의자들은 인간의 전적 부패를 무한 강조함으로써 문화변혁적 칼빈주의자들처럼 일반은총에 근거한 모든 인간의 문화명령의 수행 가능성에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 구원론에 있어서도 교리주의자들은 예정론과 제한속죄에 초점을 두어 택자와 불택자들의 영원한 구원과 멸망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문화변혁주의자들은 반드시 만인구원론을 지지하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구원의 총체성을 강조함으로써, 구원이란 개인의 영혼구원과 육체의 구원이며, 인격적인 구원만이 아니라, ‘구조악의 구원’이면서 ‘문화의 구속’이며, ‘사회적 성화’로서 구원이며, ‘만물의 회복’으로서의 구원의 측면을 강조한다. 즉 구원에 있어서 개인구원이나 인간학적 차원의 구원에 머물지 않고, 우주적이며 삶의 총체로서 구원에 주목한다. 종말론에 있어서도 교리주의자들은 세계멸절설(annihilation mundi)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문화변혁주의자들은 세계변형설(transformatio mundi)로 이해함으로써 미래의 천국과 현재의 문화적 성취를 단절이 아닌 연속성으로 이해한다. 이 점에 대해, C. Plantinga Jr., *Engaging God's World: A Christian Vision of Faith, Learning, and Living*, (Grand Rapids: Eerdmans, 2002), 오광만 역, 『기독교의 성서적 책임』규장, R. J. Mouw, *When the Kings Come Marching in: Isaiah and the new Jerusalem*, (Grand Rapids: Eerdmans, 2002).

신학의 제일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그들에게 칼빈주의는 진보신학과 대척점에 서 있는 변증적 신학이었으므로 이들에게 있어서 칼빈주의는 사회변화와 진보를 위한 신학적 근거로서 문화변혁적 칼빈주의의 맥락과는 연결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교회에서 칼빈주의란 정통 보수신학을 수호하는 것을 말하면서, 매우 배타적이며 협소한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IV. 칼빈주의가 사회적 공공성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

1. 사회속의 공적 신학으로서 칼빈주의

왜 칼빈주의를 사회적 공공성의 측면에서 고찰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칼빈주의라는 신학체계와 역사적 유산 자체가 이미 '사회속의 공적 신학'(public theology in society)의 특징을 띠며 존재해 왔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칼빈주의는 역사안에 형성된 다양한 신학적이며 사회적 구성의 유산가운데 사회의 공공 영역에서 가장 광범위하고도 결정적인 영향력을 끼친 신학적 사회형성체이다. 니콜라스 월터스토프(Nicholas Wolterstorff)는 칼빈주의가 끼친 사회-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영향력을 압축적으로 표현하여 '세계형성적 기독교'(world-formative christianity)라고 규정하였다.⁶⁾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가 이미 지적하였듯이 루터파 신학은 이신칭의에 의한 구원론적 원리이면서, 인간학적 차원의 신학에 머물러 있으면서, 두 왕국적 사회형성론에서 보여주듯 그리스도의 통치영역을 복음과 말씀에 의한 영적인 나라에 제한함으로써 세속 국가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구현하지 못하고 사회, 정치, 문화의 영역을 그리

6) N. Wolterstorff, *Until Justice and Peace Embrace*, 홍병룡 역,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출 때까지』 (서울: IVP, 2008), 21, 25, 33, 52.

스도 통치권 밖으로 밀어 내어 세상의 공공의 영역을 자율적으로 방임함으로써 교회의 사회변혁에 대한 적극적인 논거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으며,⁷⁾ 가톨릭 교회는 자연과 은총, 교회와 국가사이의 이원화된 이층구조의 틀을 설정함으로써 존재의 상하구조를 종합하여 여전히 두 영역의 이원성을 유지하여 은총이 자연을, 교회가 국가를 보다 적극적으로 변혁하는 동기를 불러일으키지 않는다고 지적한다.⁸⁾ 또한 재세례파 신학은 교회와 국가의 반정립을 지나치게 설정하여 교회는 국가로부터 유리되어 게토화되어, 구속의 질서안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구현할 뿐 창조의 일반은총 영역에서 소외되고 만다.⁹⁾ 그런 점에서 칼빈주의의 변혁적 사회형성론만이 그리스도의 왕적 통치론에 근거하여 종교적인 영역과 세속 영역의 이분화를 피하지 않고 전 영역이 그리스도의 전포괄적 주재권아래 있음으로 교회가 적극적으로 사회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구현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그런데 왜 한국교회의 역사적 전개과정에서 칼빈주의에 기반한 사회변혁적 역할과 기여가 미진했는가? 물론 한국개신교 역사에서 칼빈주의 신학이 근대화과정에서 사회발전과 진보에 기여한 역할이 전무했다고 평가절하하거나 그 역할이 미미했다고 단정해서도 안되지만, 80년대 이후 격동기의 민주와 과정과 사회변혁기에 칼빈주의 교회가 당시의 사회정치적 상황앞에서 예언자적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으며, 교회성장기에 접어든 이후에도 개혁신학의 전통위에서 있던 한국장로교회가 사회의 공공의 광장에서 이렇다 할 정치적 역할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말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왜 한국의 칼빈주의 신학과 교회에서 삶의 전 영

7) A. Kuyper, *Lectures on Calvinism*, 김지찬 역, 『칼빈주의 강연』, (일산: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6), 32.

8) A. Kuyper, 『칼빈주의 강연』, 31.

9) A. Kuyper, 『칼빈주의 강연』, 42.

역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의 구현이라는 모토가 좀 더 분명하게 들리지 않았으며, 오늘에 와서도 한국의 칼빈주의는 사회적 공공성의 면모를 구현하지 못하는지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

2. 칼빈주의의 타당성 구조의 문제

그런데 한국개신교가 직면한 위기의 본질은 교회성장의 쇠락이나 목회자의 윤리적 일탈, 개신교의 세상과의 소통의 부재와 같은 현상적인 문제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또는 흔히 생각하듯 사회속에서 교회의 사회적 역할이나 사회봉사적 책임을 충분히 감당하지 못하는 데에서만 그 원인을 찾는 것 역시 피상적인 관찰이다.¹⁰⁾ 한국교회의 위기의 진정한 본질은 전환기의 한국사회속에서 개신교의 타당성 구조가 문제의 본질이다.

‘타당성 구조’(plausibility structure)란 한 사회속에서 어떤 신념이 타당성이 있는지를 결정하는 사회적 구조를 말한다.¹¹⁾ 그런데 한국개신교, 특히 칼빈주의 그룹은 이성과 합리성이 지배하는 현대사회안에서 ‘그렇듯 한 생각의 구조로, 즉 ’의미가 통하는 타당한 확신’으로 전달되고 있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 한국사회는 신화적 전통사회에서 근대 과학적 세계관이 지배하는 사회로, 일원화된 권위주의적 보편 질서의 사회에서 가치, 신념, 의견의 개별성과 다양성이 개방된 다원주의 사회로 전환기를 맞이하였으며,¹²⁾ 여기서 칼빈주의와 같은 전통적이며 권위주의적 신앙은

10) 오히려 최근 개신교가 사회 전반에서 맹목적인 정도로 공공의 적이 되거나, 주된 비판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데에는 다원주의 사회로 진입하는 한국사회에서 개신교의 급속한 종교권력화에 대한 반작용의 측면이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다시 말해 교회성장기에 진입한 한국 개신교가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문화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그리고 사회계층적으로 지배집단이 되었으며, 그들이 우리 사회의 많은 공간을 점유하고 있다는 의식을 하게 되었으며, 그러한 개신교가 우리 사회에서 지나치게 일방적인 행위 방식을 드러내 주었으며, 그에 대한 견제의 측면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11) L. Newbigin, *Truth and Authority in Modernity*, 김기현 역, 『포스트모던 시대의 진리』 (서울: IVP, 2005), 52-62.

리와 행태들이 오늘의 사회의 공론장에서 타당성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¹³⁾ 왜 여성 사제의 서품을 금지하고, 보수적인 도덕관을 견지하는 가톨릭교회는 우리 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을까? 그 이유는 가톨릭교회가 교회의 교도권을 수행함에 있어서 한편으로는 전통의 수호와 다른 한편으로는 토착화와 같은 문제에 있어서 적절한 현대적 적응성을 보여줌으로써 가톨릭교회가 일반 대중으로부터 거부감없이 설득력있는 종교집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개신교에서 타당성 구조가 가장 문제시되고 있는 집단은 바로 보수-정통주의를 추구하는 칼빈주의 신학과 교회라고 할 수 있다. 정통주의적이며, 근본주의적으로 이해된 칼빈주의는 근대화된 합리적 논리체계가 아니라 매우 전통적인 신념체계이며 강력한 권위주의적이며 질서론적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칼빈주의 전통에서 있는 교회의 존재방식과 그들의 신앙방식, 그리고 신학함의 방식은 합리적인 사고체계나 의사소통 구조를 중시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런데 합리적 사고와 논리의 타당성을 중시하는 현대사회에서 그러한 칼빈주의의 존재방식과 행위방식은 사회속에서 타당성 구조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다. 어떤 칼빈주의자들은 ‘엄밀한 개혁주의’라는 이름으로, 17세기 정통주의 개혁신학만이 유일무이한 무오한 신학으로 고집하면서 칼빈주의를 어떠한 현대적 논의와 단절하려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한 자기 결정을 당연시하는 현대사회에서 인간의 자유의지의 행위방식을 기계적 결정론적으로 이해하는 예정론과 연결하여 삶의 방식에 있어서 거의 운명론적이며 자유방임적 행위방식으로 사고하거나, 그럼에

12) 김덕영, 『환원근대: 한국 근대화와 근대성의 사회학적 보편사를 위하여』, (서울: 길, 2014), 87-330.

13) 기독교 신앙과 공론장의 관계에 대해, 김동춘, “왜 한국 개신교는 공공성과 충돌하는가?”, 조석민 외, 『세월호와 역사의 고통에 신학이 답하다』(대전: 대장간, 2014), 79-96.

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해하는 칼빈주의에 관한 특정교리를 절대 진리로 고수하면서 다른 의견과 대화하지 않고 정죄하는 고집불통의 모습을 띠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모든 칼빈주의자들은 사회속의 공공성앞에서 배타적인가? 칼빈주의적 신앙논리와 행태들은 현대성 앞에서 언제나 불일치해야 하며, 대결적 태도를 띠어야 하며, 충돌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실례를 북미 신칼빈주의자 리차드 마우(R. Mouw)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는 가치, 신념, 의견, 삶의 방식이 다원화된 사회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칼빈주의적인 신실한 믿음을 견지하면서도 불신자들과 일반성과 공통성을 공유하면서 무례하지 않는 기독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다.¹⁴⁾

오늘의 한국개신교가 직면한 위기의 밑바닥에는 기독교 신앙과 현대성(합리적 사고와 행위방식의 타당성)사이의 불일치와 갈등의 해석이 충돌하는데 있다. 그러한 불편한 양상이 가장 현상적으로 표출되는 개신교 그룹이 바로 칼빈주의 진영이다. 보수성향의 목사들의 권위주의적인 교회운영으로 인한 교회의 갈등 현상, 교회 여신도에 대한 노골적인 성 폭력 행태, 교리선포에 있어서 현대적 사고와 삶의 방식의 불일치로 인한 갈등이 유달리 칼빈주의 교회 공동체안에서 빈번하게 표출되는 양상은 다름 아닌 칼빈주의 신앙체계의 사회적 타당성 구조의 실패를 반증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바로 최근 왜곡되게 드러나고 있는 교회현상을 단지 목사들의 윤리적인 이탈현상으로 단정지어서는 안되는 것임을 말해 주는 것이며, 그것은 외형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사회적 공공성 문제의 또 다른 차원인 것이다.

14) R. Mouw, *Uncommon Decency*, 홍병룡 역, 『무례한 기독교』, (서울: IVP, 2014), 17-27.

V. 왜 한국 칼빈주의는 사회적 공공성에 실패했는가?

1. 정통성, 절대성, 무오성으로 전제된 배타적 특권신학으로서 칼빈주의

언제부터인가 한국에서 칼빈주의는 가장 배타적인 신학이요, 자기중심적인 신학이며, 속좁은 신학의 상징으로 비춰지고 있다. 칼빈주의 교리와 신학으로 철저히 교육받은 신학자일수록 오만하며, 자기중심적이며, 폐쇄적인 신학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러한 목회자일수록 불신영역과 소통하지 못한 채 세상과 담을 쌓으며, 배타적이며 웅고집에 사로잡힌 사고에 빠지고 있다.

그렇다면 본래 칼빈주의란 그런 신학인가? 아니면 원래의 칼빈주의는 사회적 공공성을 추구하며 포용적인 신학이었으나 한국적 신학 풍토에서 진보와 보수신학사이의 냉전적이며 대결신학적인 분위기에서, 그리고 교단분열의 풍토에서 무의식적으로 배타적이며 방어적 신학으로 변모한 것일까?

한국보수신학에서 칼빈주의는 정통성, 절대성, 무오성의 신학으로 특징지어왔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한국보수진영의 신학공동체에서 유독 칼빈주의는 여타 신학과는 비교불가능한 정도의 배타적이면서 특권적 신학으로서 지위를 점하였다. 한국에서 보수신학자로 신학을 수행하려면 칼빈주의는 정통신학이며, 절대 정확무오한 신학으로 고백해야만 했다. 칼빈주의를 그렇게 고백하지 않는 신학자, 그리고 칼빈주의에 대한 의심을 품는 신학자는 자유주의 신학자로 낙인 찍게 했으며, 그러한 검열을 통과한 후에 그는 신학적 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었다. 따라서 칼빈주의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관찰이 사실상 봉쇄되어 왔다. 칼빈주의에 대한 이의제기는 곧 바로 그의 신학적 사상의 의심을 불러일으켰으며, 그것은 신학계에서 신학적 죽음을 의미했다.

그런 점에서 한국신학에서 칼빈주의는 정통성, 절대성, 무오성의 신학으로 규정되어왔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종교개혁신학은 성경의 권위를 교회의 전통과 동등한 권위로 위치시키는 로마 가톨릭교회의 입장을 비판하면서도, 정작 한국 칼빈주의 신학진영은 빈번하게 칼빈주의라는 신학적 유산을 성경의 절대 무오성의 권위만큼 간주하도록 강요되어 왔다. 하지만 이것은 ‘오직 성경으로만’이라는 종교개혁적 원리에 배치된다는 점에서 매우 놀라운 일이다. 칼빈주의는 자신의 신학을 제외한 다른 신학에 대해서는 매서운 신학적 검열과 비판을 가하면서도, 정작 칼빈주의 신학에 대해서는 절대 무오한 신학으로 간주함으로써 자신의 신학에 대한 어떠한 객관적 검증조차도 불허해 왔다. 한국보수신학에서 칼빈주의의 타당성은 주로 칼빈주의 신학의 교리적 정통성과 역사적 전통성에 기반한 것이었다. 그러나 신학의 정통성과 타당성은 교리 자체의 진리주장의 절대성이나 신학의 역사적 유산의 장구함으로부터 부여받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신학에서 칼빈주의의 타당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는 나오지 않았다. 보수신학에서 칼빈주의의 절대성과 타당성은 칼빈주의 자체에 부여된 순환논리였다. 예를 들어 ‘칼빈주의는 바른(정통한) 신학이다’. ‘왜냐하면 칼빈주의는 바른(정통한) 신학이기 때문이다’라는 논리이다. 칼빈주의의 신학적 타당성은 하나님의 존재증명이나 성경관의 무오성을 입증하는 논리를 적용한 경우가 다반사였다.¹⁵⁾

이러한 논리에 따라 칼빈주의는 그 자체가 타당하기 때문에 타당한 것이 되었다. 다시 말해 칼빈주의는 그것의 신학적 오류나 문제점을 제기해서는 안될 신학적으로 절대 무오한 신학으로 강요되어 왔다. 칼빈주의를

15) 이는 마치 ‘하나님은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하나님의 존재는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전제되어야 할 문제이므로,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또한 성경론에 있어서도 ‘성경은 왜 하나님 말씀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므로 하나님 말씀이다’ 라는 순환논법적이며, 전제주의적 논리구조에 근거하여 설명하려 한다.

다른 신학과 비교하여 상대화한다거나, 혹은 그 신학체계에 대해 어떠한 형태의 ‘의심의 해석학’을 가하는 것은 불허되었다. 칼빈주의는 어떤 경우라도 절대성, 무오성, 규범성, 정통성, 완결성의 요소를 갖춘 신학으로 이미 전제되었다. 그러므로 칼빈주의는 ‘개혁하는 신학’이 아니라, 더 이상 그 신학적 논리와 구조, 그리고 진리주장에 반론이 제기해서는 안될 대상으로 간주되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역사속에 태동한 특정한 신학을 마치 하나님과 성경관에 대한 인식방법에 적용하려는 시도로서 예리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개혁과 정통주의의 신학방법론은 신학의 논리적 엄밀성과 지성적 합리성과 타당성을 추구하는 신학이다. 칼빈주의 신학은 결코 신학의 타당성을 신비주의나 직관주의에 의존하지 않고, 맹목적인 믿음을 강요하는 신학이 아니며, 지성의 희생을 강요하는 신학이 아니며, 오히려 ‘지성을 추구하는 신학’, 다시 말해 ‘이해를 추구하는 신학’(fides quaerens intellectum)이었다는 점을 환기될 필요가 있다.

2. 세계형성적 공공신학이 아닌 교리 변증적 칼빈주의: 정통실천 (orthopraxis)없는 정통교설(orthodoxy)

칼빈주의는 ‘교리로서 칼빈주의’와 ‘사회변혁적 에토스로서 칼빈주의’로 나눌 수 있다. 전자에 해당하는 칼빈주의는 정통 개혁주의의 역사적 파생물로 이해된 칼빈주의이다. 여기서 칼빈주의란 언약신학을 특징으로 하는 신학체계가거나, 소위 칼빈주의 5대 교리(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불가항력적 은총, 제한 속죄, 성도의 견인)와 동일시된다.¹⁶⁾ 그런 점에서

16) E. H. Palmer, *Five Points of Calvinism*, (Grand Rapids: Baker, 1972), J. M. Boice, P. G. Ryken, *The Doctrines of Grace*, 이용중 역, 『개혁주의 핵심: 칼빈주의 5대 교리』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0). 칼빈주의 5대 교리의 요약인 TULIP에 대한 비판적 설명에 대해, R. E. Olson, *Against Calvinism*, (Grand Rapids: Zondervan, 2011), 38-69.

칼빈주의를 언약신학의 한 유산으로 이해하거나, 예정론이 그 신학의 핵심이라거나, 어떠한 경우라도 제한 속죄론이라야 하거나, 장로교적 교회 정치를 칼빈주의라고 배타적으로 고수하려는 칼빈주의는 사회변혁적 에토스를 함축하는 의미의 칼빈주의로 이해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정통 개혁주의로 특징지어진 칼빈주의는 칼빈주의 신학 그룹 내부에서 언약신학을 근대 정치사상의 발전에 역동성을 제공했다거나,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예정론이 초기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 연관성을 가져왔다는 등, 칼빈주의가 끼친 역사의 진보와 정치-경제적 발전에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인식이 거의 전무했다. 칼빈주의를 표방하는 한국의 보수 장로교 신학은 칼빈주의 사고체계가 삶의 전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을 강조함으로써 그 어느 신학보다 세계안에서 하나님나라의 구현을 강조하고 있으며, 일반은총과 문화명령, 그리고 영영주권의 원리에 근거하여 세계형성적인 기독교세계관을 형성하려고 노력했으며¹⁷⁾, 더 나아가 학문과 자연과학, 사회과학, 그리고 사회윤리적 연관성에 대해 인식의 공유점이 전무했다¹⁸⁾. 어떤 의미에서 그들이 고백했던 칼빈주의 교리들은 사회변화와 공공성의 맥락과 아무런 연계점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칼빈주의는 왜 이토록 사회적 공공성의 의미가 결핍되어 있는가? 그것은 칼빈주의 신학의 논리체계 자체가 사회윤리적 취약점을 갖기 때문인가? 그 보다는 칼빈주의 교리가 사회적 공공성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기보다 역설적으로 반윤리적 논리를 지원하는 논리적 메카니즘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한다. 다음에 열거하는 칼빈주의 교리들은 이 신

17) H. Meeter, *The basic Ideas of Calvinism*, 박윤선, 김진홍 역, 『칼빈주의』(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1959), P. S. Heslam, *Creating a Christian Worldview: Abraham Kuyper's Lectures on Calvinism*, (Grand Rapids: Eerdmans, 1998), J. M. Spier, 『기독교철학개론』문석호 역, (일산: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1).

18) 예를 들어 칼빈주의가 끼친 법과 인권사상의 발전에 기여했다는 연구로, J. Witte Jr, 『권리와 자유의 역사』정두배 역, (서울: IVP, 2015).

학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만, 그러한 특징들은 역설적으로 사회적 공공성의 측면에서 볼 때 역기능적인 방향으로 적용되어 왔다는 점을 설명하고자 한다.

1) 하나님 주권과 섭리의 숙명론적 사고로 인한 인간의 책임성 약화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다.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논리적으로 배척되고 대립하는 사고를 가져오는 경우가 빈번했다. 간혹 칼빈주의자들 가운데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약화된다고 생각하여 가능한 한 인간편의 의지적 자유의 영역을 극소화하려는 경향을 발견한다. 이러한 하나님 주권론의 일방적인 강조는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자발적이며 능동적인 선 의지를 약화시키는 경향으로 흐르기도 하였다. 또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편향된 사고로 인해 개인의 운명과 사회변화에 있어서 인간의 책임을 방기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버리는 숙명론적이며, 운명론적인 사고로 연결됨으로써, 시대와 역사속에서 인간의 윤리적 책임을 약화시키는 왜곡된 논리를 초래하였다. 그리스도인이 처한 시대 상황앞에서 분명한 목소리와 책임적 역할을 발휘할 시점에 왜곡된 칼빈주의적 사고로 길들여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자주 사회적 부조리와 불의한 상황을 하나님의 섭리적 현실로 순응함으로써 교회의 공적 책임을 약화시킨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2) 예정교리의 사회적 책임의 역기능

예정론은 칼빈주의의 핵심교리로 거론된다. 그러나 예정이란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조건없이 선사되는 구원 은총을 강조하는 것이며, 택자에 대한 선택과 불택자에 대한 유기로서 예정이며, 인간의 삶의 독자적인

결정 범위에 대한 미리 정하심이 아니다. 예정에도 불구하고 역사안에서 인간의 자기 결정능력은 섭리의 영역안에서 허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에서 예정교리는 신자들에게 주어진 현실을 수동적으로 묵종하는, 운명론적 행위방식으로 길들이도록 고취시키는 병리적 기능으로 작용하였다. 한국의 칼빈주의는 예정론을 ‘숙명론적 결정론’으로 해석함으로써 역사안에서 인간의 역동적 변혁의지를 거세해 버리는 ‘역사 결정론’으로 귀착되든지, 인간의 행위에 있어서 어떠한 자유로운 선택을 가로막아버리는 ‘노예의지적 결정론’을 초래하게 되었는데, 예정론에 대한 이러한 사고는 결국 보수 기독교로 하여금 사회변화와 역사의 진보에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게 만든 논리적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3) 인간의 전적 타락과 무능력 교리

칼빈주의 사고에서 인간의 전적 타락과 부패로 인해 인간의 자유의지는 심각한 수준에서 손상되었다고 역설한 점은 지극히 옳다. 그러나 인간의 전적 부패를 강조했던 칼빈주의자들에게 이 교리가 타락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마귀의 형상이라고 단정한 루터의 노예의지적 인간론관점으로 이끌어가지는 않았는가? 칼빈주의 사고에서 인간의 전적 타락과 부패 교리는 인간의 전인격에 총체적 타락과 부패를 초래했다는 타락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그러나 타락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의 잔존효과가 있으며, 타락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은총의 도움으로 모든 인간은 어느 정도 보편적 선 의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인간사회의 진보를 위한 공동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다는 진취적인 인간이해를 개발하지 못한 점은 반성해야 할 것이다.

4) 성도의 견인교리: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칼빈주의 5대 교리가운데 성도의 견인교리는 믿는 자들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견고한 약속을 말하는 것이지만, 지나치게 승리주의 구원관을 초래함으로써 윤리적 긴박성을 주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칼빈주의 예정교리와 언약신학의 틀은 자칫 정통실천(orthopraxis)없는 정통교리(orthodoxy)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함으로써 교리 만능주의로 흐를 수 있다. 많은 경우 칼빈주의자들은 철저한 윤리적 실천을 요구하는 성경본문들을 거의 예외없이 비윤리적으로 처리하거나 실천 무용론적인 시각에서 처리하는 것을 보게 된다. 그 이유는 칼빈주의자들은 택자들의 구원은 구원 이후의 삶과 상관없이 확실히 보장되어 있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도의 견인교리의 본질은 구원이란 신자의 믿음에 근거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선택에 근거하므로, 선행은 구원에 무효할 뿐 아니라 그 어떤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근거지어서는 안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또한 칼빈주의자들은 성도의 견인교리를 근거하여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으로 이끌어 가므로 신자의 윤리적 삶과 무관하게 구원에 이른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기도 한다. 이처럼 예정론이든 성도의 견인교리든 이 모든 해석학적 사고에는 기계적 필연주의 사고가 깊이 작동하는 것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렇다면, 또 다른 형태의 칼빈주의의 신학적 유산인 청교도주의는 사회적 공공성에 기여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어떤 의미에서 청교도주의는 엄격주의적 개인윤리를 강화하는데 기여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한국의 청교도주의가 그토록 강조했던 엄격한 개인윤리가 사회의 공공의 영역에까지 확장되어 발휘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만일 한국의 보수장로교회가 수용한 칼빈주의가 창조신학에 근거하여 문화변혁적 신학을 특징으로 하는 네덜란드의 카이퍼리안 전통의 신칼빈주의의 신학적

유산을 좀 더 명료하게 이해하여 이를 한국사회의 현실에 적용했다더라면 그 신학이 담고 있는 일반은총론적이며 문화명령의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훨씬 더 적극적으로 사회 공공성을 발휘하는 교회로 발전되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혹은 한국 칼빈주의가 남아공 개혁신학의 신학적 반성을 좀 더 진지하게 수용했다더라면, 한국의 칼빈주의는 70-80년대의 역사적 상황에서 분명한 사회변혁적 칼빈주의로 기여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보수 칼빈주의는 메이첸(Grasham Machan)과 반틸(Cornelius Van Til) 전통의 개혁신학을 수용함으로써 자유주의 신학을 방어하는 교리수호적 개혁신학의 기반을 다지는데 공헌과 기여를 했지만,¹⁹⁾ 사회 공공성의 차원에서는 미진한 역할을 했으며, 다만 정통교리 수호적이며 변증신학적 칼빈주의로 남게 되었다는 점을 확인하게 된다.

3. 사회변혁적 예언자적 신학이 아닌 교회 수호적이며, 기득권 옹호적 국가 신학으로서 칼빈주의

한국사회에서 칼빈주의가 끼친 사회 문화적 영향은 과소평가할 수 없을 것이다. 구한말 개화기 이후 한국사회의 근대화의 발전 과정에서 칼빈주의 교회와 신학을 배제하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칼빈주의 교리에 의해 설립된 장로교회가 근대국가형성기에서 현대사회의 발전기에 그들이 기여한 긍정적인 역할은 결코 무시될 수 없을 만큼 지대한 것이었다. 오늘날에도 장로교를 비롯한 칼빈주의 교회는 사회 저변에서 사회적 약자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돌보는 사회봉사 활동을 광범위하게 감당하고 있다.

그러나 칼빈주의 신학은 국가권력과 정치질서에 대해 묵종적인 순응과

19) 한국 보수 장로교 개혁주의 신학에 있어서 메이첸-반틸리안적 경향성에 대해, 김동춘, “한국개혁신학의 패러다임”, 『국제신학』 제12권(2010), 35-50.

협력을 통한 밀월관계를 줄곧 유지해 왔다. 장로교 교회가 국가와 정부와 갈등관계보다는 순조로운 협력과 상호원조로 일정한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은 사실이나 국가권력이 독재정권으로 정권을 비합법적인 방식으로 점유하고, 민주화 운동을 억압할 때, 그리고 급속한 경제성장의 달성을 위해 대기업에는 특혜를 제공하고, 노동자 계층에 대해서는 정당한 인권보장을 하지 않을 때, 칼빈주의 교회와 지도자들은 언제나 정부 여당의 정치적 입장을 두둔하고 현상 유지적인 체제옹호적인 신학, 기득권 수호적인 신학을 일관되게 표방하였다.²⁰⁾ 칼빈주의 신학은 어떤 경우에 라도 희생자의 관점과 피해자 중심의 관점에서 사회현실을 이해하여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을 변호하기보다 언제나 기득권의 편에서, 국정 통치자 편에 서서 그들의 정치적 논리를 대변함으로써 국가신학의 길을 걸어 왔던 것이다.

독재정권이 등장하여, 정치적 민주화의 요구가 들끓고, 경제적 불평등 현실이 극단으로 치달을 시기에 칼빈주의를 자처하는 교회와 신학자 그룹 내부에서 독재권력의 정치적 부당성에 대해 예언자적 비판을 직설적으로 표명한 적이 얼마나 있었으며, 우리 사회에서 부당하게 투옥되거나 희생양이 되었던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해, 그리고 사회적 약자로 주변부화된 계층의 아픔에 대해, 또한 그러한 계층을 영속적으로 만들어 내는 사회질서의 불평등 구조에 대해, 단지 사회봉사적 온건한 방식으로 역할을 감당했을 뿐, 개혁교회로서 사회구조에 대한 성경에 근거한 합당한 의견제시와 부당함을 표명한 적이 얼마나 있었는가? 대부분 장로교회는 정치적 태도에 있어서 정교분리 원칙을 빌미로 불의한 정권의 부당성에

20) 한국 칼빈주의 교회가 국가에 대한 미온적 태도에 비해, 칼빈주의의 정치사상은 훨씬 저항적 혁명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Q. Skinner, *The Foundations of Modern Political Thought Vol. II*, 박동천 역, 『근대 정치사상의 토대 2』(서울: 한국문화사, 2012), 371-641.

대해 침묵하면서 암묵적으로는 옹호하고 지지하는 소극적 방식의 정치참여에 관여하였으며, 87년 민주화 체제 이후에는 뉴라이트 세력과 함께 보수정권의 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권창출에 관여하였으며, 경제체제에 대해서는 평등지향적인 경제구조보다는 경제적 약자계층의 이익보다 지배층의 이익을 옹호하는 성격의 차별적인 자본주의 경제구조를 지원하였다. 이런 점은 한국 칼빈주의 그룹은 분명히 체제옹호적이며, 기득권 수호적이며, 국가신학적 이데올로기에 편향된 집단임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다.²¹⁾

4. 사사화된 신학(privatized theology)이 되어버린 칼빈주의

한국 칼빈주의 신학의 관심과 강조점이 삶의 전 영역과 창조세계 전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추구였다고 말할 수 있는가? 오히려 칼빈주의의 철저한 자기중심주의에 매몰된 채 대화적이며, 에큐메니칼적 신학이 되지 못함으로써 또 다른 의미의 ‘사사화된 신학’이 되고 있지는 않는가? 칼빈주의 신학이 보여준 문화변혁운동은 소극적 의미의 문화론에 머물러 있고, 가능한 한 비정치적이며 무정치적 신학이 되려고 하는 것은 신학의 공적 기능과 역할을 약화시키는 것이며, 그러한 공공성의 결핍은 궁극적으로 이 신학이 사적 종교의 형태를 띠는 것을 말해 준다. 최근 한국개신교회가 오순절주의처럼 물질주의적 구원론과 현세축복론적 번영신앙에 경도되어 세속주의의 물결앞에 응전하기 보다 물화(物化)된 형식의 욕망의 종교로 변질되고 있는 것은 사적종교로 후퇴의 징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된다.²²⁾

21) 김성건, “한국교회의 정치참여”, 한국교회의 현실과 쟁점, (서울: 프리칭아카데미, 2011), 79-112, 김지방, 『정치교회』(서울: 교양인, 2007), 89-95,

22) 조용기의 삼박자 구원론은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과 연결되고, 일부 국내학자들의 이론적 뒷받침에 힘입어 마치 영혼과 육체의 구원, 그리고 물질적 구원을 담아내는 총체적

VI. 사회적 칼빈주의란 무엇인가

1. 사회적 칼빈주의에 대한 기초적인 착상²³⁾

1) 사회적 칼빈주의는 무엇인가?

한국교회에서 이해된 칼빈주의가 사회의 공론장에서 기독교 신앙의 보편성과 타당성 확보에 역부족이었다는 판단 아래, 그동안 통상적인 의미의 칼빈주의를 극복하는 신학적 대안으로 ‘사회적 칼빈주의’(social calvinism)를 구상해 보려고 한다. 사회적 칼빈주의는 칼빈주의의 신학과 사상을 사회적 공공성과 사회변혁의 맥락에서 결부지으면서, 그것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신학을 말한다.

다시 말해 사회적 칼빈주의란 사회 공공의 영역에서 칼빈주의 신앙(belief)과 교회(church), 그리고 신학(theology)이 사회속에서 타당한 방식으로 존재하면서, 시대상황에 부응하는 실천을 성찰하고자 한다. 그것은 칼빈주의의 사회 공공영역에서 보편 타당성을 질문하는 것과 함께 그것의 사회적 책임과 실천을 논하는 것을 말한다.

구원관처럼 오도되고 있는데, 이 구원관은 사실상 인간의 욕망을 극대화하도록 종교적으로 후원하는 변영신학의 동기가 깔려있음을 간파해야 할 것이다.

23) 어떤 의미에서 ‘칼빈주의에 대한 사회적 맥락의 탐색’이라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사회적 칼빈주의’라는 별도의 명칭이 필요한가 하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필자는 오늘의 개신교신학이 사회적 질문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기독교교리 자체만으로 변증하는 것은 한계가 분명하므로 기독교교리의 사회윤리적이며, 사회학적이며, 사회비판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사회속의 교리’, 다시 말해 ‘교리의 사회신학적 탐구’가 필요하며, 이를 ‘사회적 교의학’(social dogmatics)으로 구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그동안 기회있을 때마다 모든 신학적 주제를 사회적 관점에서 구성하려고 시도해 왔다. 김동춘, 『사회적 책임의 신학』(용인: 뉴미션21, 2009), “사회선교의 신학적 근거”, 성서한국 편, 『사회선교 한걸음』(서울: 뉴스앤조이, 2007), “사회적 안식일 신학을 향하여”, 김근주 외, 『안식일인가, 주일인가』(대전: 대장간, 2015), 81-109. “예배와 사회적 영성”, 기독교연구원 느헤미야 신학캠프 자료집(2012.2.18),

사회적 칼빈주의란 칼빈주의적 신앙체계와 교리적 진술을 사회적으로 타당한 논리로 설명하면서 칼빈주의 신학을 사회적 실천과 결속하고자 하는 신학이다. 또한 그것은 칼빈주의에 입각한 교리는 당연히 윤리적 결과물을 가져올 것이라는 논리적 결과론이라든가, 그런 맥락에서 교리 우선주의나 사회적 실천을 후차적으로 사고하지 않고, 오히려 사회속에서의 실천과 삶의 차원에서 칼빈주의 교리를 재조명하는 것을 말한다.

칼빈주의 신학의 타당성을 신학의 정통성과 역사적 전통성이라는 자체 내의 논리구조에서 찾지 않고 사회적 관련성과 타당성과 적합성에서 접근하려고 한다. 다시 말해 칼빈주의가 사회적 공공성의 측면에서 오늘의 사회속에서 ‘응답하는 신학’²⁴⁾으로 기능했는가를 묻고자 한다. 이는 칼빈주의가 천상의 독백처럼, 유아독존적 사고에 매몰되지 않고 사회 공공의 광장안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신학이다. 그리하여 칼빈주의 신학과 교리는 과연 사회적 공공성에 부응하는 신학이 되고 있는가를 묻고자 한다.

2) 사회적 칼빈주의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신학(social theology)에서 그 근거점을 찾을 수 있다.

최근 삼위일체론 신학은 ‘사회적 삼위일체론’(social trinity)의 부상으로 전통적인 존재론적 삼위일체론과 달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페리코레시스적 관계성과 상호성과 친교성을 강조하는 삼위일체의 내적 사회성을 인간학적,²⁵⁾ 생태학적,²⁶⁾ 경제적²⁷⁾ 현실과 접목하는 시도에서 사회적 칼빈

24) 신학의 과제는 한편으로는, 기독교 메시지의 진리를 선포할 책임과 함께,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의 필요에 응답할 책임이 있다는 틸리히의 상관관계의 방법론처럼, 칼빈주의의 신학적 진리를 사회적 차원, 즉 사회 공공의 맥락으로 결부시키고자 하는 시도를 말한다. 칼빈주의 신학은 기독교의 진리성을 보존하기 위해 상황에 응답하는 신학보다 진리선포의 신학에 강조점을 두었다면, 그 신학의 사회적 기능성에 관심을 두려는 것이다.

25) S. Grenz, *The Social God and the Relational Self: A Trinitarian Theology of the Imago Dei*,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7).

주의의 착상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

예수가 선포했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사회적 차원을 윌터 라우쉬부쉬는 ‘사회적 복음’으로 규정했다. 물론 라우쉬부쉬의 사회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내재적 나라로 환원시켰다는 점은 명백하게 비판되어야 한다. 그러나 라우쉬부쉬의 사회복음은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에 만연된 흐름처럼, 복음을 개인적인 필요와 사사로운 욕망을 채워주는 이기심의 투영물이나 물화(物化)된 복음이해로 변질되는 경향을 경계해 주고 있다. 복음은 분명 개인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사적인 복음이어서는 안되며, 그것은 사회적 복음의 차원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복음은 하나님의 통치가 개인적이며 교회주의적 차원을 넘어 세계 전체를 포괄한다는 점에서 사회적이며, 자기에와 자아도취적인 이기성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사회적이라고 할 수 있다.

교리의 사회적 차원을 위해 ‘사회적 교회론’(social ecclesiology)과 ‘사회적 목회론’(social ministry)²⁸⁾을 참조할 수 있다. 교회의 사회적 차원을 탐색하는 사회적 교회론은 교회의 내적 본질로서 사회성(sociality)과 세상을 향한 교회의 봉사적 기능으로서 사회성의 측면을 말한다. 사회적 교회론은 디트리히 본회퍼(Dietrich Bonhoeffer)의 교회의 사회학적 연구에서 귀결된 ‘타자를 위한 교회론’과 게르트 로핑크(Gerd Lohfink)의 대조 사회로서 교회(Gemeinde als Kontrastgesellschaft)²⁹⁾에 대한 착상, 요더

26) J. Moltmann, *Gott in der Schöpfung: Ökologische Schöpfungslehre*, 김균진 역, 『창조안에 계신 하느님』,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7).

27) M. D. Meeks, *God the Economist: The Doctrine of God and Political Economy*, 홍근수, 이승무 역, 『하느님의 경제학』(서울: 한울: 1998).

28) 사회적 목회(Sozialpastoral)에 대해, H. Steinkamp, *Solidarität und Parteilichkeit*, (Mainz Matthias-Gruenewald-Ver., 1994).

29) G. Lohfink, *Wie hat Jesus Gemeinde gewillt?: Zur gesellschaftliche Dimension der christlichen Glaubens*, 정한교 역, 『예수는 어떤 공동체를 원했나?: 그리스도 신앙의 사회적 차원』(예관: 분도, 1985).

(Yoder)와 하우어아스(Hauerwas)의 세상속에 가시적으로 구별된 사회적 실재로서 교회³⁰⁾ 등에서 그 신학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보다 본격적인 사회적 교회론은 교회의 사회봉사적 기능으로 탐색하는 ‘디아코니아 교회론’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기독교신앙의 사회성은 기독교 영성이 현실문제와 시대적 고통으로부터 유리되어 ‘순수 영성주의’로 귀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사회적 영성’을 말할 수 있으며³¹⁾, 예배에 있어서 예배를 위한 예배나 믿는 자들을 위한 예배와 같은 교회 내부자 중심의 예배를 넘어서서 사회적 고난과 사회적 공동선을 위한 문제를 예배로 연결하는 사회적 예배를 생각할 수 있다.

이처럼 사회적 칼빈주의는 칼빈주의 자체가 이미 사회 공공성에 깊이 관련되어 있고, 함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리적 칼빈주의나 관념적 칼빈주의와 구별하는 의미에서 칼빈주의 신학의 사회적 차원을 인식하고 정립하려는 신학적 시도라고 할 수 있다.

3) 기독교신학, 지배자신학, 국가신학의 관점에서 희생자의 눈으로 신학 함이 필요하다

칼빈주의 신학을 국가신학적인 체제옹호적이며, 기독교 수호적 신학이나, 교회변호적 신학이 아니라 신학의 전망을 하나님나라의 신학이요, 구조변혁적 신학, 그리고 예언자적 신학으로 전진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순기능적인 문화변혁적 신학에서 갈등론적인 구조변혁적 신학에 대한 관점을 재구성해야 한다. 더 나아가 칼빈주의 신학이 의도하지 않은 채, 암묵적으로 체제옹호적 신학으로 자리매김하지는 않았는지 예민한 재검토

30) J. H. Yoder, *The Politics of Jesus*, (Grand Rapids: Eerdmanns, 1972), 153.

31) 김진호 외, 『사회적 영성: 세월호 이후에도 삶은 가능한가』, (서울: 현암사, 2014).

가 필요하다. 지난날 유럽의 역사에서 칼빈주의가 미친 사회·정치적 영향력은 놀라운 정도라고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오늘의 한국교회에도 자동적으로 그에 상응할만한 응답을 하는 것은 아니다. 칼빈주의 신학이 그렇게 사회 전체를 포괄하는 신학적 근거점을 담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한국교회에서 유의미한 사회적 역동성을 발휘하지 못했을까? 그것은 칼빈주의 이념을 현존하는 정치권력의 불의한 구조나 비민주적 독재세력에 대항하거나 불평등한 경제구조를 새롭게 변혁하는 변혁적 신학으로 작동하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체제옹호적인 방식으로 현상유지에 급급한 질서의 신학으로 작동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2. 사회적 칼빈주의를 위한 핵심적인 구상

칼빈주의 신학이 갖는 뛰어난 강점이자 특징으로서 하나님 주권 신학,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신학, 칭의와 함께 성화론적 구원론, 하나님나라 신학의 관점, 세계형성적 기독교로서 신학을 사회적 공공성의 차원으로 결합하고 재구성하는 작업이 요청된다.

1) 세계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칼빈주의 신학의 근본방향은 ‘세계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의 강조에 있다. 칼빈주의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주권의 신학’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의 영역은 경건주의적 복음주의 신앙이 강조하는 ‘구속된 신자의 내적 경건’이나 ‘영적인 평안을 갈구하는 내면 질서’만이 아니며, 실존주의 신학에서 발견되는 비본래적 자아로 살아가는 비존재의 위협아래 처한 불안한 실존(볼트만, 탈리히)도 아니라, 삶의 총체(카이퍼)³²⁾이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의 구현은 개인구원이나 교회 공동체라는 종교적인 구역에 머물지 않고 인간사회의 역사와 문화를

포함한 창조 현실 전체를 포괄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통치와 주되심의 영역은 결혼(가정), 국가(정치), 노동(경제)을 포함한 삶의 전 영역에 있다.

2) 죄와 구속의 사회적이며 공적 차원

고전적인 칼빈주의 죄론과 구원론을 전통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면 매우 협소하면서 배타적인 관점으로 귀결된다. 전통적으로 칼빈주의가 이해하는 죄론은 주로 원죄에 강조점이 있으나, 원죄는 죄의 기원만을 부각시킴으로써 죄의 실제적인 양상인 실행죄의 구체적인 이해가 약화되는 경향이 있다. 무엇보다 죄의 사회적인 양상, 즉 사회 문화적으로 드러나는 악마적인 사회 관습이나 암암리에 축적된 나쁜 전통과 비인간적인 질서들이 인간을 억압하고, 착취의 시스템으로 몰아가는지 설명하지 못하는 약점을 지닌다. 이것이야말로 죄스러움의 구조이며, 바로 이러한 ‘구조악’으로서 죄와 ‘역사적 실재로서 죄’의 양상에 대한 깊은 이해가 요구된다.

칼빈주의 5대 교리를 근거하여 기독교의 구속론을 설명할 때, 택자 구원론이나 제한 속죄론에 머물게 된다. 그러나 택자 구원론과 제한 속죄론은 잘못된 구원론은 아니지만 그리스도 구속의 포괄적 차원을 놓치는 배타적 구원론에 머물 수 있다. 죄가 하나님과 인간과의 수직적인 차원의 분리와 단절만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간의 수평적 차원의 왜곡, 즉 전인격적인 파탄 상태를 초래하였고, 궁극적으로는 피조물 전체를 악한 상태로 빠뜨렸듯이, 그리스도의 구속은 개인의 구속과 교회를 향한 신자들의 구속을 넘어서 정사와 권세들, 곧 악한 구조와 관습과 제도, 문화들과 이념과 질서들까지 구속의 효과가 미친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구원이란 단지 인격 차원의 죄용서, 칭의, 중생만이 아니라 초인격적인 구조의 구

32) A. Kuyper, 『칼빈주의 강연』, 33. 카이퍼는 루터교는 ‘교회적 신학’이라는 특성에 국한되지만, 칼빈주의는 교회를 넘어 인간의 삶 전체에 영향을 끼치며, 그런 점에서 칼빈주의는 전적으로 ‘인간의 삶의 세계 전체를 형성하는 종교’임을 강조한다.

속과 만물의 회복과 새창조로서 구속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바르멘신학선언서(Barmer Theologische Erklärung)는 그리스도의 왕적 통치설에 근거하여 칭의와 성화에 의한 구속의 차원을 정치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석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는 ... 우리의 전 삶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요구이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영역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다른 주에게 속하여 있는 영역, 즉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한 칭의와 성화를 필요로 하지 않는 영역이 있다는 거짓된 가르침을 배격한다”.³³⁾ 바르멘선언서가 칭의와 성화의 영역을 정치영역을 포함한 모든 삶의 영역까지 확장하여 표명한 것은 구속의 사회 공공적 함의를 개혁주의적인, 다시 말해 칼빈주의적으로 천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3) 교회의 공적 선교: 하나님의 주권을 세상속에 구현하는 총체적 복음화

교회의 존재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속에 구현하는 것에 있다.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속에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요구이며 명령으로, 먼저 죄인된 인간을 향해 하나님의 뜻과 분리된 삶의 방식으로부터의 회심이면서, 이웃과의 불의한 삶의 질서로부터의 회심, 즉 방향전환인데, 그것은 이웃과의 증오와 불화(마5:21-24)와 이기심과 폭력을 추종하는 삶(눅3:11-14)과 탐욕을 쫓는 불의한 경제질서(마6:19-20; 눅18:22, 19:8-9; 약5:1-6)까지 포함한다. 그러므로 복음은 삶의 총체적인 방향전환인 회심을 요구받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복음의 내용으로서 하나님 나라는 옛 삶의 질서로부터 새로운 삶의 질서안으로 편입되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격적으로 수납하고, 이웃과의 관계와 관행과 제도, 사회 질서, 그리고 경제적인 구조악에 이르기까지 전적

33) W. Niesel(Hg.), *Bekennnisschriften und Kirchenordnungen der nach Gottes nach reformierten Kirchen*, (Zuerich, 1938), 333-334.

으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주권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 나라의 선포로 수행된 그리스도의 복음화 사역은 인격적인 차원이나, 사회-경제적 관계의 방향전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 반하는 육체적인 질병과 악마에 사로잡힌 현실까지 포함하는 신체의 건강회복과 악령의 추방까지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회가 수행해야 할 복음화는 인격 차원의 죄인과 복지의 결핍으로서 육체적 질병과 일그러진 세계 전체를 포함하는 총체적이며 공적인 선교인 것이다. 칼빈주의가 모든 삶의 영역과 세계 전체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그의 통치의 구현을 목표로 한다면, 복음화를 향한 교회의 선교적 사명은 개인구원에 국한될 수 없으며, 구조악의 구속과 정치의 구속,³⁴⁾ 그리고 경제질서의 구속과 문화의 구속, 그리고 자연 생태계의 구속까지 포괄하는 공적 선교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선교과제는 '세상을 향한 봉사'이다. 세상에서 수행되는 교회의 봉사는 복음의 증언이 되는 것으로, 구두적 선포로 이루어지는 '말씀의 봉사'이며, 선포된 말씀을 행동으로 증거하는 '사회적 봉사'(diakonia)가 있다. 그리고 교회의 사회적 봉사는 구제와 돌봄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회적 서비스(social service)와 구조악의 개선을 위한 정치적 참여와 사회변혁을 포함하는 사회행동(social action)이 있다. 다시 말해 세상 속에서 교회의 증거는 말로 증거하는 것(Saying the Witness)과 행동으로 증거하는 것(Doing the Witness)과 존재로서 증거하는 것(Being the Witness)이 있으며, 이것은 모두 사회속의 교회의 공적 봉사가 된다.

4) 칼빈주의와 사회적 제자도의 윤리

칼빈주의 신학은 하나님의 주권, 예정론, 언약신학, 성도의 견인을 강

34) 정치의 구속에 대해, 민중기, 『한국정치신학과 정치윤리』(서울: KIATS, 2012), 35-41.

조함으로써 우주론적인 원리주의 신학과 승리주의 신학의 특징이 농후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 이유로 이 신학의 체계에서는 그리스도인의 내면적 실존에서 흘러나오는 죄와 은혜, 구원과 비구원, 하나님과 악마사이의 심각한 갈등과 투쟁적 면모를 발견하기 힘들다. 칼빈주의 신학은 죄 많은 세상 한 복판에서 그리스도를 따를 것인가, 세상을 추종할 것인가, 하나님과 악마사이에 끼어 갈등하는 인간의 진솔한 자기고백을 신학화하는 루터신학과는 다른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칼빈주의 신학은 그리스도 왕적 통치론이란 명제가 보여주듯, 죄스런 이 세상 현실에서 벌써 저 천상에서 승리의 나팔을 불어대고 있고, 하나님의 구원계획은 영원 전에 규정되어 미래를 향해 흔들림없이 진행되어 가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역사 전체에서 하나님의 주권의 전적인 승리를 낙관하는 신학적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리차드 마우도 카이퍼 전통의 신칼빈주의 사고에 내재된 ‘기독교 승리주의 정신’을 경계하여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창조세계의 모든 영역을 소유하고 계신 이상 우리의 사명은 앞으로 전진해서 그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정복하는 일이다와 같은 정복주의 사고를 ‘제국주의적 제자도’라고 비판적으로 지적한다.³⁵⁾

칼빈주의 신학 전체에는 원리주의적 시스템 논리가 농후하게 깔려있다. 그러나 창조·타락·구속·완성이라는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구원사적 도식으로 과연 지속적으로 밀려오는 악마적인 세계현실을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주권’과 같은 천상적 승리주의 신학보다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면서 저 악마적이며, 무신적 권세에 저항하는 지상적인 십자가신학, 다시 말해 파토스적 신학, 하나님 아픔의 신학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칼빈주의 신학은 제자도

35) R. Mouw, 『무례한 기독교』, 193-204. “다같이 나가서 그리스도가 왕이신 것을 정치인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이 그분의 영토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자!”

의 신학, 다시 말해 그리스도 뒤따름의 윤리에 의해 보완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마주하는 세계현실과 투쟁해야 하는 역동성을 담아내지 못한다. 사회의 공공의 장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야 하는 제자도의 윤리는 천상의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이 지상의 현실안에서 필연적으로 실현될 것이라는 순진한 낙관주의를 통해서가 아니라, 죄와 구원, 은총과 자연, 하나님과 인간사이의 양극단에서 부단한 뒤따름의 투쟁을 통해 실현될 것이라는 사회적 제자도의 윤리가 필요하다. 제자도의 신학은 거대한 우주론적 신학의 체계아래 신자 개인이 치러야 하는 치열한 투쟁적인 삶이 매몰되는 듯한 논리의 신학이나 원리주의 신학도 아니라 개개인의 부단한 결단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실현하려는 인격적 신학이자 실천의 신학이 필요한 것이다.³⁶⁾

교회가 사회의 공공영역에서 수행해야 할 사회적 제자도(social discipleship)의 영역에는 구체적으로 정치적 제자도가 있을 수 있다. 정치적 제자도(political discipleship)는 복음전도, 교회설립, 교회봉사에 초점을 둔 ‘교회 내적 제자도’³⁷⁾와는 달리 창조시 주어진 문화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세상속에서 교회가 수행되는 ‘교회 외적 제자도’가 있는데, 여기서 정치적 제자도는 칼빈주의 신학의 유산에 근거하여 일반은총에 의해 국가안에서 법질서를 세우고, 사회정의를 증진하여 살림의 사회를 조성하는 것으로 교회의 공적 책임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³⁸⁾

36) 김동춘, 『사회적 책임의 신학』, 52-53.

37) 복음주의 관점의 제자도 개념은 대부분 그리스도의 모방(imitatio Christi)과 관련하여 인격적 제자도의 차원에 머물러 있다. “우리는 ...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결과는 반드시 생활양식의 변화로 나타나지만 새롭게 시작한 그들이 삶이 일차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에 들어서는 것이라고 힘주어 강조했다”. M. J. Wilkins, *Following the Master: Discipleship in the Steps of Jesus*, 황영철 역, 『제자도 신학』(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15), 536.

38) 민중기는 정치적 제자도에 대한 신학적 근거를 주로 ‘카이퍼리안 신칼빈주의’(Kuyperian Neo-Calvinism)의 전통에 서있는 리차드 마우의 ‘정치적 복음전도’에서

3. 사회적 칼빈주의를 위한 신학적 모색의 사례들

1) 신칼빈주의와 해방신학의 대화를 통한 세계형성적 개혁신학(Nicholas Wolterstorff)

북미 기독교철학자 니콜라스 월터스토프(Nicholas Wolterstorff)는 칼빈주의 유산위에 서 있으면서 역사상 가장 세계변혁적 기독교의 유산을 화려한 신칼빈주의와 남미 해방신학으로 전제하면서 이 두 신학이 지닌 사회형성의 근거들을 제시한다. 카이퍼 전통의 신칼빈주의는 세계를 신앙이나 우상이라는 동인(動因)에서 찾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현실을 파악함에 있어서 가난과 같은 사회적 상황으로부터 접근하지 않고 신앙과 우상이라는 보다 근원적인 동인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지적한다. 신칼빈주의가 바라보는 사회관과 역사관은 도여베르트의 분화(differentiations)와 개현(disclosure)이라는 착상에 근거하여 미분화에서 분화의 과정을 향해 거침없이 전진하는 낙관적인 방향을 깔고 있으며, 이것이 하나님의 우주적 법질서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사회현실안에 내재된 가난과 비참에 대한 상황론적 인식과 사회학적 분석이 결여되어 있다고 비판한다. 신칼빈주의의 신학체계에 결여된 요소를 남미 해방신학은 역사의 이면에 대한 인식, 즉 역사의 희생자들의 관점에서 이 세계의 비참을 인식하고 있으며, 가난이라는 역사적 실재를 죄로 규정함으로써 전통적인 신학이 가지는 추상적인 죄 관념을 극복하게 하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월터스토프는 해방신학은 반대로 죄의 신학적 차원, 즉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반역으로서 죄의 의미를 놓치고 있다고 비판한

찾는다. 그는 정치적 제자도를 '정치선교', 혹은 '정치의 구속'의 개념과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민종기, 『한국정치신학과 정치윤리』, 111-130. R. J. Mouw, *Political Evangelism*. (Grand Rapids: Eerdmans, 1973), 이정석 역, 『그리스도인과 정치』(서울: 나비, 1989). 신칼빈주의적 관점의 정치신학에 대한 마우의 신학적 사고에 대해, *Politics and Biblical Drama*, (Grand Rapids: Eerdmans, 1976).

다. 그는 기독교 구원이 살롬을 지향한다면, 교회가 선포해야 하고, 선택해야 할 편은 가난한 자들의 편에 서야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월터스토프가 남미 해방신학과 화란 신칼빈주의를 적대적인 신학이 아니라 서로 대화하여 통합하여 사회신학적인 성찰을 이끌어 내는 데에는 사실상 남아공의 인종차별 상황에 대한 칼빈주의적 관점의 응답이라는 측면이 농후하다.³⁹⁾

2) 남아공 인종차별상황에서 칼빈신학에 근거한 해방신학적 개혁신학(de Gruchy)

그런데 더 분명한 사회신학적 관점으로는 남아공 인종차별의 상황에서 칼빈과 칼빈주의를 신학적 유산을 근거로 하여 소위 ‘해방하는 개혁신학’, 혹은 ‘개혁신학적 해방신학’을 시도하는 드 그루시(de Gruchy)를 사례로 들 수 있다. 그의 신학적 출발점은 본래 사회-정치적 변혁을 추구하던 종교개혁적 개혁신학이 왜 남아공의 화란개혁교회에 의해 억압과 차별을 자행하는 인종차별의 신학으로 변질되어 사회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이 되고 말았는가를 지적한다. 그루시는 남아공의 인종차별적 개혁신학은 제국주의와 사회의 지배계급과 결탁한 결과 해방하는 개혁신학이 아니라 해방되어야 할 신학이 되었으며, 이를 위해 칼빈과 칼빈주의 신학에 근거하여 해방신학을 새롭게 조명하고자 한다. 그루시는 개혁신학이 억압과 착취와 차별의 신학논리를 극복하고, 흑백 인종차별을 합리화하는 ‘질서의 신학’으로부터 해방하는 변혁적 신학이 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압제로부터 자유케 하는 말씀임을 강조하면서, 무엇보다 희생자들의 안경으로 성경을 읽을 것을 제안하며, 해방신학의 중심테제인 ‘가난한 자들에 대한 우선적 선택’의 착상을 칼빈의 선택론과

39) N. Wolterstorff, 『정의와 평화가 입맞출 때까지』21, 25, 33, 52.

연결하여 새롭게 해석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 외에도 그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형상론을 말하면서 사회적 죄론과 은총과 회개에 대한 사회적 해석을 시도하면서, 종교개혁의 ‘항상 개혁해 가는 교회’를 인종차별의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있다.⁴⁰⁾

우리는 여기서 윌터스토프와 그루시가 모두 칼빈주의라는 신학적 전통 위에 서서 ‘개혁신학적 관점의 사회의 신학’을 모색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그들은 화란 신칼빈주의와 남미 해방신학을 서로 교차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칼빈주의의 사회적 공공성의 신학으로의 가능성을 효과있게 제시하고 있다.

VII. 나가면서

역사속의 칼빈주의는 정치, 경제, 문화 등 삶의 전 영역에서의 변혁과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의 칼빈주의는 지나치게 교리 수호적 방향으로 이해된 측면이 있었다. 더구나 오늘의 한국개신교는 교회의 사회적 공공성에 대한 폭넓은 인식이 요구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한국교회는 괄목할만한 외적 성장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초기 근대화의 시기처럼 사회진보와 발전에 기여하지 못한 채, 우리 사회의 공론장에서 게토화되고, 퇴각하는 형국이 되고 있는지 심각한 질문이 필요하다. 한국개신교에서 막중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응분의 사회적 책임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는 보수 칼빈주의가 앞으로 사회적 공공성의 차원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보다 명료한 자

40) J. W. de Gruchy, *Befreiung der reformierten Theologie: Ein südafrikanischer Beitrag zur ökumenischen Diskussion*, (Chr. Kaiser: Gütersloher Verlag, 1995), 이철호 역, 『자유케 하는 개혁신학』(서울: 예영, 2008).

기정리와 비판적 성찰이 필요하다. 그동안 정통 칼빈주의 그룹은 주로 교리적 차원에서 자신의 위상을 정립하려 했으며, 때로는 지나칠 정도로 자기 주관적인 정당화에 몰두된 측면이 없지 않았다. 다시 말해 정통교리를 담보하고 있다고 확신하는 칼빈주의는 사회 발전과 진보에도 필연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 올 것이라는 승리주의적 낙관론에 매몰된 경향이 있었다. 이제는 칼빈주의 교리와 신념들이 우리 사회에서 공공성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보다 객관적인 검증과 검토작업이 요구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본 논문은 앞으로 한국의 칼빈주의 신학과 교회가 사회속의 공적 책임과 역할을 온전하게 감당하는 자극제가 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김덕영, 『환원근대: 한국 근대화와 근대성의 사회학적 보편사를 위하여』, 서울: 길, 2014.
- 김동춘, “왜 한국 개신교는 공공성과 충돌하는가?”, 조석민 외, 『세월호와 역사의 고통에 신학이 답하다』대전: 대장간, 2014, 79-96.
- _____, “한국개혁신학의 패러다임”, 『국제신학』 제12권(2010), 35-50.
- _____, 『사회적 책임의 신학』 용인: 뉴미션21, 2009.
- _____, “예배와 사회적 영성”, 기독교연구원 느헤미야 신학캠프 자료집, 2012. 2.18.
- _____, “사회선교의 신학적 근거”, 성서한국 편, 『사회선교 한걸음』 서울: 뉴스앤조이, 2007.
- _____, “사회적 안식일 신학을 향하여”, 김근주 외, 『안식일인가, 주일인가』 (대전: 대장간, 2015), 81-109.
- 김성건, “한국교회의 정치참여”, 한국교회의 현실과 쟁점, 서울: 프리칭아카데미, 2011, 79-112.
- 김지방, 『정치교회』서울: 교양인, 2007.
- 김진호 외, 『사회적 영성: 세월호 이후에도 삶은 가능한가』, 서울: 현암사, 2014.
- 민종기, 『한국정치신학과 정치윤리』, 서울: KIATS, 2012.
- Boice, J. M. / Ryken, P. G. *The Doctrines of Grace*, 이용중 역, 『개혁주의 핵심: 칼빈주의 5대 교리』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0.
- de Gruchy, J. W. *Befreiung der reformierten Theologie: Ein südafrikanischer Beitrag zur ökumenischen Diskussion*, 이철호 역, 『자유케 하는 개혁신학』 서울: 예영, 2008.
- Grenz, S. *The Social God and the Relational Self: A Trinitarian Theology of the Imago Dei*,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7.
- Heslam, P. S. *Creating a Christian Worldview: Abraham Kuyper's Lectures on Calvinism*, Grand Rapids: Eerdmans, 1998.
- Kuyper, A. *Lectures on Calvinism*, 『칼빈주의 강연』, 김지찬 역, 일산: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6.

- Lohfink, G. *Wie hat Jesus Gemeinde gewillt?: Zur gesellschaftliche Dimension der christlichen Glaubens*, 정한교 역, 『예수는 어떤 공동체를 원했나?: 그리스도 신앙의 사회적 차원』 (왜관: 분도, 1985).
- Marsden, G. "Introduction: Reformed and American", in D. F. Wells(ed.), *Reformed Theology in America*, Grand Rapids: Baker Books, 1997.
- Meeks, M. D. *God the Economist: The Doctrine of God and Political Economy*, 홍근수, 이승무 역, 『하느님의 경제학』서울: 한울: 1998.
- Meeter, H. *The basic Ideas of Calvinism*, 박윤선, 김진홍 역, 『칼빈주의』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1959.
- Moltmann, J. *Gott in der Schöpfung: Ökologische Schöpfungslehre*, 김균진 역, 창조안에 계신 하느님,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7.
- Mouw, R. J. *When the Kings Come Marching in: Isaiah and the new Jerusalem*, Grand Rapids: Eerdmans, 2002.
- Mouw, R. J. *Political Evangelism*, 이정석 역, 『그리스도인과 정치』서울: 나비, 1989.
- _____, *Politics and Biblical Drama*, Grand Rapids: Eerdmans, 1976.
- _____, *Uncommon Decency*, 홍병룡 역, 『무례한 기독교』 서울: IVP, 2014.
- Newbiggin, N. *Truth and Authority in Modernity*, 김기현 역, 『포스트모던 시대의 진리』서울: IVP, 2005.
- Niesel, W(hg.), *Bekennnisschriften und Kirchenordnungen der nach Gottes nach rerformierten Kirchen*, Zuerich, 1938.
- Olson, R. E. . *Against Calvinism*, Grand Rapids: Zondervan, 2011.
- Palmer, E. H. *Five Points of Calvinism*, Grand Rapids: Baker, 1972.
- Plantinga, C. Jr, *Engaging God's World: A Christian Vision of Faith, Learning, and Living*, 오광만 역, 『기독교지성의 책임』 규장, 2004.
- Skinner, Q. *The Foundations of Modern Political Thought Vol. II*, 박동천 역, 『근대 정치사상의 토대 2』 박동천 역, 서울: 한국문화사, 2012.
- Spier, J. M. *An Introduction to Christian Philosophy*, 문석호 역, 『기독교철학개론』 일산: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1.
- Steinkamp, H. *Solidarität und Parteilichkeit*, Mainz Matthias-Gruenewald-Ver., 1994.

- Wilkins, M. J. *Following the Master: Discipleship in the Steps of Jesus*, 황영철 역, 『제자도 신학』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15.
- Wolterstorff, N. *Until Justice and Peace Embrace*, 홍병룡 역, 『정의와 평화가 입맞출 때까지』 서울: IVP, 2008.
- Witte, J. Jr, *The Reformation of Rights*, 정두배 역, 『권리와 자유의 역사』 정두배 역, 서울: IVP, 2015.
- Yoder, J. H. *The Politics of Jesus*, Grand Rapids: Eerdmans, 1972.

논문투고일: 2015. 06. 30.

심사개시일: 2015. 07. 13.

게재확정일: 2015. 08. 07.

• 국 문 초 록 •

본 논문은 한국 보수 개신교에서 영향력있는 위치에 있는 칼빈주의의 신학적 특징을 공공성의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고찰하면서, 그 대안으로서 사회적 칼빈주의를 제시한 것이다. 본래 칼빈주의는 ‘세계형성적 기독교’의 한 유산이었으며, 삶의 전영역에서 사회적 진보와 정치, 경제, 문화의 발전에 기여한 변혁적 기독교의 산물임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에서 칼빈주의는 주로 칼빈주의 5대 교리(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 은총, 성도의 견인)로 대표되는 교리 변증적 칼빈주의로 이해되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가 사회속에서 공적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화란 카이퍼리안 전통에서 나타난 문화변혁적 신칼빈주의 신학의 유산과 남아공 개혁교회와 신학에서 발견되는 해방신학적 칼빈주의를 오늘의 교회와 사회적 상황에서 새롭게 재발견하여 사회적 칼빈주의 모색하고자 한다.

주제어: 사회적 칼빈주의, 세계형성적기독교, 카이퍼리안 전통, 신칼빈주의 교회의 공공성
